

## 보리를 많이 먹자.

보리를 사료로 쓴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보리는 쌀과 함께 우리나라의 주곡이다. 이 주곡인 보리를 소비촉진책으로 사료로 사용하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소비가 해가 갈 수록 줄어 남아도는 보리를 처치하기 위한 것이란다.

보리 소비량 추이를 보면 1인당 75년 36.3kg이던 것이 76년엔 34.2kg, 78년 20kg, 79년 15kg, 80년 13.8kg으로 해마다 줄었다.

이에 따라 보리생산량도 감소현상을 나타냈다.

75년 1천 3백 10만 5천섬, 76년 1천 3백 41만 8천섬에 이르렀던 것이 77년 6백 25만섬, 78년 1천 6만 1천섬, 79년 1천 1백 27만 6천섬으로 줄었고 80년엔 6백 56만 7천섬, 81년 6백 66만 1천섬, 82년 5백 94만 1천섬으로 80년대 들어서 보리 생산량은 격감되었다.

그러나 줄어 들고 있던 보리소비량이 81년도에 들어서면서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다. 80년도에 1인당 13.8kg까지 떨어졌던 보리소비량은 82년 16.2kg선으로 늘었다.

특히 도시사람들의 보리 소비량이 현저히 증가 82년도의 경우 비농가의 1인당 평균 보리 소비량은 12kg으로 81년의 9.4kg에 비해 2.6kg이 1년 사이에 늘어났다.

이러한 현상은 건강식품으로 각종 공해에 찌든 도시인들에게 각광을 받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근년에 들어와서 보리가

무공해 건강식품이란 인식이 널리 알려지면서 도시 지역의 중류 이상 가정에서 혼식을 많이 먹고 있는데 그 원인이 있으며 또 보리소비촉진을 위해 보리로 만든 빵, 국수\* 플레이크 등 새로운 제품을 개발, 식생활을 개선하고 있는 것도 보리소비증가에 한 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해(82년)는 생산이 수요를 따르지 못하는 부족사태까지 빚어 당국에서는 보유보리 방출량을 늘렸고 따라서 햇보리 가격도 크게 뛰어 올랐다.

팔시받던 보리쌀이 지난해 급격히 소비가 늘자 당국은 보리생산을 늘리지 않으면 울타리는 연간 약 1백만섬이 모자랄 것으로 보고 대폭적인 증산을 유도했다.

그 결과 올해 보리 생산량은 지난해 보다 13% 늘어난 6백 50여만섬(당초계획은 7백 14만 1천섬)에 이르렀다. 이처럼 보리생산이 증가했으나 보리소비는 지난해 한달 평균 16만 6천섬에서 올해 들어서는 12만 7천섬으로 무려 23.5%가 줄었다.

정부의 보유 보리쌀의 방출량을 살펴 보면 지난해 12월 12만 7천섬에서 금년 1월 7만 9천섬으로 격감했다가 3월에 14만 4천섬으로 다시 늘어나기도 했다.

그후 7월 12만 5천섬, 8월에 9만 6천섬으로 보리소비가 또 다시 둔화현상을 보이고 있다.

80년도 이후 지난 2년간 꾸준히 증가했던 보리소비가 울타어 다시 감소한 것은 국민소



丁 大 秀  
〈毎日經濟新聞社 調査部長〉

득 수준 향상에 따른 식생활패턴의 고급화가 주원인이다.

소득증대로 생활수준이 높아지면 보리쌀과 같은 저급식량을 먹지 않기 마련인데 주부들이 보리쌀을 주식으로 하기에는 그 과정이 복잡하고 귀찮기 때문에 자연히 쌀을 많이 먹게 되고 분식을 하게 된다.

따라서 식생활패턴이 쌀이나 분식으로 바뀌어 보리 소비는 줄게 되어 있는데 이같은 현상이 최근 들어 나타난 것이다.

지난해 당국의 보리증산 유도로 올해 보리 생산량이 백만섬을 훨씬 넘어섰으나 소비는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올해 생산된 보리쌀을 3백 80만섬을 수매해 놓고 있으며 정부 창고에는 82년산 보리쌀이 아직도 1만 3천섬이나 남아 있다.

특히 올해는 벼농사가 대풍을 이루어 3천 8백만섬의 쌀이 수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쌀 증산으로 보리쌀의 소비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당국으로서는 현재 남아 도는 보리쌀 처리에 골치를 앓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당국자들이 온갖 지혜를 다 동원하여 짜낸 것 중의 하나가 보리쌀의 사료화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사료용으로 도입하고 있는 옥수수 대신 남아 도는 보리쌀을 사료로 활용하면 의화도 절약하고 창고에 그득히 쌓여 있는 재고도 처분할 수 있어 一石二鳥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이유를 앞세워 보리쌀의 사료화를 합리화하려고 하는 눈치인 것 같다.

보리쌀은 단백질은 물론 비타민 B와 철분 등이 풍부하며 당분이 없다. 그래서 당뇨병, 뇌졸중, 고혈압, 변비, 비만증등 성인병을 막을 수 있는 무공해 건강식품으로 인기가 높은 주곡이다.

보리쌀은 우리나라의 주곡일 뿐만 아니라 보리만이 갖는 특성을 살려서 식생활패턴 변화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 보리의 증산에 따라 소비촉진책도 함께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비대책없이 무작정 보리증산만 독려하는 양곡정책을 펴고 있다.

소득향상으로 식생활이 고급화되어 보리를 먹지 않으면 보리를 가공해서 먹는 식생활개선을 유도하는 방안도 많다. 예를 들어 보리로 만든 빵이라든지 보리 국수 보리후레이크 등으로 가공해서 먹으면 된다.

따라서 보리쌀 혼식만을 통해 소비를 촉진하는 종래의 방법을 탈피, 보리를 활용한 새로운 제품을 다양하게 개발 이를 통한 보리소비 촉진전략이 바람직하리라 생각한다. 또 보리는 단백질 부족과 아미노산의 불균형, 철분·칼슘·비타민 B군의 부족을 보충해 주는 주식이라는 점을 널리 홍보 하고 계몽하여 혼식을 식습관으로 형성해야 할 것이다.

특히 보리를 보다 많이 먹음으로써 연간 막대한 외화로 들어오는 쌀도입을 줄여 외화절약에도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